

# 東洋文庫所藏 重刊本 「主制羣徵」에 대하여

—특히 板本과 그 資料的 價値를 中心으로—

沈 喆 俊\*

## 1

東洋文庫所藏의 重刊本 宗教書중에 基督教書 「主制羣徵」<sup>1)</sup> 이 있다. 이 책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李瀛의 「星湖塞說」중에 많이 引揭<sup>2)</sup> 되고 있으나 傳來本은 韓國에는 全혀 없다. 그것은 朋黨의 弊가 激甚할 때 天主教에 關係되는 人들중에 有識階級으로 南人에 屬하는 者가 많았고, 더우기 李承薰이 淸에서 歸國한 뒤에 天主教를 信奉하는 者가 續出하여, 儒敎로써 國民道德의 基礎로 삼아왔던 李朝社會에 一大 變革을 가져 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卽 信徒중에는 父母의 祭祀를 없애고 祖先의 位牌를 버리는 등 儒敎思想과는 全혀 相反되는 行動을 하여 이로 말미암아 1786年(正祖 10) 法으로 基督教을 禁<sup>3)</sup> 하였다. 淸으로부터의 關係書

★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助敎授

1. 正史中心의 官邊記錄에 置重하거나, 民間中心의 殘存文化를 批判하는 野史의 立場에서는 다 같이 「天主의 實在와 그 道理」라 하여 輕視하기 쉬운데, 그것이 布敎라는 先入感을 떠나 그 論證이 科學을 前提로 하였다면 當代의 科學樣相을 對照 檢討해야 할 것이다. 「主制羣徵」은 이 點에서 韓國中世紀의 科學을 理解하는데 注強해야 할 文獻의 하나이다.
2. 李瀛은 그의 著 「星湖塞說」에서 「鄔昔望者西洋人, 天啓間至中國, 善醫究中國本草八千餘種, 惜未翻譯」(李瀛著, 星湖塞說, 上. 서울, 慶熙出版社, 1967. 影印本. p. 533. 人事門 烏若望條)이라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湯若望」을 말하는 듯 하다. 그것은 天啓(1620—1627 A.D.) 연간에 中國에 온 사람이 獨逸의 宣敎師인 湯若望이었고, 그는 또한 天文學者이고 同時에 醫學에도 해박한 분 이기 때문이다. 또한 李瀛은 同書에서 「湯若望 主制羣徵曰, 太陽西行, 四刻 約應地四百五十二萬里…」라하여 湯若望의 「主制羣徵」의 一文을 引用한 것도 있다. (李瀛著. ibid. p. 51.)
3. 「湯若望이 世子(昭顯世子)에게 贈物로 준 책속에 「主制羣徵」이란 書名의 明記는 없으나 世子가 湯若望의 感謝狀지 속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天主教를 아는 者가 없으므로 異端邪敎라 하여 天主의 尊嚴함을 더럽힐까 두려워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天主像을 費下에게 도로 돌려 보낸은 過失이 없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句節로 보아 世子가 「主制羣徵」을 가져 오지는 않았고, 當時의 天主教書가 禁書였음을 볼 수 있다.

籍의 輸入을 막았으며 이미 들어 온 것을 불살라 버렸을 뿐만 아니라 信仰者를 死罪하는 일까지 있었으니(辛亥事件) 迫害<sup>4)</sup> 와 殉教 속에서 이러한 典籍이 輸入될 까닭이 없었음은 當然하다. 設使 그 前에 輸入되었다 해도 남아 있을 까닭이 없다. 이러한 迫害 속에서도 往往 傳來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國內에서는 아직까지 發見되지 않고 있고 意外에도 日本에 그 重刊本<sup>5)</sup> 이 現存하고 있다.

## 2

同文庫所藏의 重刊本「主制羣徵」은 아깝게도 完本은 아니고, 自序가 없는 重刊鉛活字本으로서 卷上, 卷下 合해서 不過 116葉이다. 그리고 앞 部分은 없고, 뒷 部分의 卷末에도 版權紙가 없다. 筆者는 처음에는 이것이 李朝 中葉에 흔히 볼 수 있었던 湯若望의 著를 譯한 것이거나 혹은 湯若望이 西洋의 宗教書를 譯한 譯本類가 아닌가 했으나, 重刊序 등을 一瞥해 본 바 그렇지 않았다. 지금까지로는, 그 重刊本의 底本은 馬良의 親友인 英華歛之의 藏本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그 著者는 中國에 오랫동안 滯在한 바 있고 中文에도 能熟했던 獨逸人 湯若望이 直接 著述한 漢字本임이 確實하다. 重刊本 卷下 末尾에는 附箋格으로 校閱한 信徒名이 있지만 卷首에는 著述한 者를 밝힌 「遠西 湯若望 著」<sup>6)</sup> 가 明記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때의 著述인지는 그 刊年이 分明치 않다. 앞서 論及한 바와 같이 이의 原著는 아직 發見되지 않았고 天津大公報館에서

4. 또한 正月七日 庚寅, 東萊府使 李元鎮의 啓를 보면 差倭 藤智繩 譯官을 불러서 耶蘇宗門의 黨이 南蠻邏羅사이에서 일어났으니 이를 搜索해서 逮捕도록 함이 어떤가고 하였다. 이에 따라 各鎮에 逮捕令을 내린 일도 있다.(仁祖實錄 46. 仁祖23年 3月 庚寅條)
5. 이 重刊本은 年前 前淑明大學校 總長 金斗鍾博士가 世界一周中 日本 東洋文庫에 所藏하고 있는 것을 마이크로 필름에 複寫해 온 것으로 「主制羣徵」의 重刊本이 傳來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6. 湯若望著, 主制羣徵, 天津, 天津大公報館, 1915. 正文 p.1.

1915年 8월에 刊行되었던 重刊本만 傳來되고 있어 初刊의 時期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이 湯若望 自身の 生存時의 著述이라면 그의 生存年代를 推定하면 쉬이 알 수 있을 것이지만, 그의 歿後<sup>7)</sup>에 刊行된 것이라면 果然 어느 때의 것인지 그 刊年을 推定하기가 매우 어렵다. 前者(生存時의 刊行)의 경우라면 그의 略歷을 더듬어서 그 時期를 推理해 낼 수 밖에 없고, 後者의 경우라면 그 책의 內容이 다른 책에 引揭된 時期를 對比해서 推定해 낼 수 밖에 없다. 于先 前者의 設定부터 보기로 한다.

湯若望(Joannes Adam Schall von Bell. 1951—1661 獨逸人)이 中國에 제뤼드 派遣神父로서 32人중에 끼어 들어 온 것은 1622年(明, 喜宗 天啓 2)이었고, 象限儀, 紀限儀, 平縣渾儀, 交食儀, 列宿經緯天球, 萬國經緯地球儀, 平面日晷, 傳盤星球, 侯時鐘, 望遠鏡 등의 儀器와 古今 交易考, 西洋測日例, 測天路說, 歷法書傳, 學曆辯 등 新曆法 100卷 이외에 主教緣起 5卷(敎理書) 眞福性詮 1卷(福音書)등을 著述한 때는 楊光先등의 誣告(1664年 淸, 康熙 3) 以前<sup>8)</sup> 인 것이다.

後者의 경우로 보면, 湯若望의 生存時에 그와 知面이 있었던<sup>9)</sup> 昭顯世

7. Joannes Adam Schall von Bell은 1591년에 獨逸에서 태어나 1661年 中國에서 그의 多彩로운 一生을 마친 분이다. (應文嬋編, 中外名人辭典. 台北, 啓明書局, 民國 49. p. 316)
8. 湯若望은 22歲때인 1611年 예수會에 들어가서 修士神父로 있다가 1622年(明, 喜宗 天啓 2)에 제뤼드 中國派遣神父 32人의 하나로 뽑혀서 明나라에 들어가 (明에 들어 온 時期에 대하여는 1627年說 (同上)과 1628年說(柳洪烈, 朝鮮天主敎會史, 서울, 朝鮮天主敎會殉敎者顯揚會, 1949. p. 43)이 있다.) 徐光啓 마오로와 觀交를 맺고 神宗皇帝의 信任을 얻어 曆書를 改正하고 曆書에 在任하고 있는 동안 天文學을 研究하여 中國天文學界에 많은 貢獻을 하여 왔다. 그 동안에 新舊曆法을 比較하여 研究한 業績은 널리 알려져 있다. 明나라가 亡한 뒤 그는 淸에 重用되어 南懷仁和 더불어 欽天監官(天文臺長)으로 있었으며, 西洋曆法에 따라 時憲書를 만들어 全國에 頒行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通光敎師의 嘉號와 晉光祿大夫 등의 榮爵까지 받았다. 그러나 1664年(淸, 康熙 3)에는 楊光先 등의 誣告로 그의 著인 宗教書는 勿論 敎會堂書籍까지도 被廢되었고, 한때 死刑(肢解之刑)에까지 處케 되었으나, 마침 地震奇災로 인하여 身邊만은 겨우 救命되었다. (應文嬋編, op. cit. p. 316.)
9. 順治元年(1644) 朝鮮國王 李淙(仁祖名)의 世子(昭顯世子)는 北京에 人質로 가서 湯若望의 名聲을 듣고, 때때로 天主敎會에 찾아가서 天文學을 考問하였다. 若望도 자주 世子館을 찾아가서 談叙한 일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契合했다. 若望은 연방 天主敎의 正道를 講하였고 世子도 자못 듣기를 좋아해서 자상히 물기도 하였다. (黃斐默, 正敎奉喪, p. 25, 世祖, 順治 1年 12月條)

자가 燕京을 떠나 올 때 傳來한 文物中에는 湯若望의 著述인 天文·算書·西教諸書와 輿地球·天主像 등이 있었다<sup>10)</sup> 고 하니 혹 이때에 「主制羣徵」이 끼어 들어 있지 않았을가 생각된다. 그러나 傳來한 文物중에는 天主教書가 없었던 것<sup>11)</sup> 같고, 世子가 回國할 때 湯若望이 보낸 天主教書단은 돌려 보냈다는 記錄이 나와 있으나 이것을 가지고서 湯若望의 生存時代인 順治年間に 「主制羣徵」이 出刊되었다고는 믿기 어렵다. 그 當時의 樣相을 보면 世子가 回國할 때 教徒 李邦詔·張三畏·劉仲林·谷豊登·竇文房 등과 같이 왔다<sup>12)</sup> 고 한다. 그러면서 그때 天主教書를 안가지고 왔다는 것은 얼른 納得이 가지 않는다. 李朝實錄에는 分明히 ‘西教諸書’를 가지고 왔다<sup>13)</sup> 고 하였으니 이것을 믿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西教諸書’라고 해서 果然 그중에 「主制羣徵」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하여는 다른 史料에 그 根據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李瀛은 그 著속에 「主制羣徵」을 記錄 引揭<sup>14)</sup> 하고 있으니 前者와 後者를 미루어 보면 順治年間に 「主制羣徵」이 出刊되었다고 하는 說이 臆測은 아닌 것 같다. 이와 같은 事實이 맞는다면 적어도 順治年間に 出刊된 「主制羣徵」이 康熙年間に 우리나라에 傳來되었다가 正祖의 基督敎書 禁書法에 의해 被燬되었던 것으로 보아 옳을 것이다. 그리고

- 10.世子가 回國할 때 若望은 贈物으로써 그가 지은 天文·算學·聖敎正道의 책과 輿地球一架와 天主像 한 幅을 보냈다.(應文輝編, loc. cit.)
11. 나는 간결히 洋學書籍과 天主像을 故國으로 가지고 가고자 하나 우리 나라는 아직 天主教를 아는 자가 없으므로 異端邪教라 하여 天主의 尊嚴함을 더럽힐까 두려워 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天主像을 賁下에게 돌려 보내어 過失이 없게 하고자 합니다(山口正之, 昭顯世子と 湯若望, (靑丘學叢 v. 5) 라 記錄되어 있으나 最近 發表된 力作 중에는 昭顯世子가 湯若望에게서 贈物로 天人像 一幅을 받은 것을 돌려보낸 일은 없이 그냥 받은 것으로 옮긴 것도 있다(李龍範教授, 法住寺所藏의 新法天文圖說에 대하여 (歷史學報 v.31. 서울, 歷史學會) p. 61) 아마도 湯若望이 世子에 贈物한 書翰 내용만을 보고, 世子가 湯若望에게 答信을 보낸 것은 미처 보지 못했는지 또는 實錄을 引用하였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12. 湯若望의 交涉을 받고 世子가 歸國할 때 皇帝로부터 내린 宦官이며 教徒인 李邦詔, 張三畏, 劉仲林, 谷豊登, 竇文房 등 5인과 宮女를 데리고 1644年 11月 26日 北京을 떠나 다음해 18日 서울에 돌아 왔다.(同文彙考 原編, Vol. 65. 刷還送還上同閣人咨)
- 13.世子가 燕나라에 있을 때 耶蘇會士 湯若望과 알게 되어 世子가 돌아올 때 若望이 譯한 天文·算學·西教諸書와 아울러 輿地球 一架, 天主像 一幅을 가지고 왔다.(仁祖實錄, 卷46, 仁祖 23年, 正月 癸巳條)
14. 李瀛, op. cit. p. 533.

그 初刊本은 아마도 明末의 活字習을 따른 「匠體字本」이었음이 짐작은  
 가나 그 傳來本을 볼 수 없으니 斷定은 어렵다. 아뭏든 初刊本에 대한  
 板本이 없으니 이 以上 實證해 낼 수는 없다. 그런데 東洋文庫所藏 重  
 刊本은 初刊本이 나온 約 2 世紀 뒤의 것인데 豫想되는 初刊本과는 全  
 혀 面貌를 달리한 「鉛活字本」이었다. 版式만은 이른 바 東洋에서 일커  
 르는 古書의 形式을 겨우 갖추고 있을 뿐이다. 이제 그 板本을 보면  
 다음과 같다.

四周雙邊, 匡郭 未詳, 有界, 9行, 20字, 注雙行, 字徑 未詳, 上·  
 下內向黑魚尾, 紙質 未詳, 鉛活字本.<sup>15)</sup>

이것은 筆者가 直接 實物을 본 것은 아니고 마이크로 필름을 通해 본  
 탓으로 匡郭, 字徑, 紙質 등은 알 수 없다. 그러나 1915년에 刊行된 鉛  
 活字本인만큼 板本의 價値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 板本은 天津大公報  
 館<sup>16)</sup> 이란 權威機關에서 出版되었으니만큼, 敎規에 따라서 嚴格히 세차  
 례나 原文과 對校<sup>17)</sup> 한 點으로 보아 原本과는 內容上 차질이 없을 것으  
 로 생각된다.

## 3

重刊「主制羣徵」은 上·下 두 卷으로서 初刊本の 序·跋文은 없고,  
 다만 馬良·英華歛之 兩氏의 重刊序가 各各 한 篇씩 있을 뿐이다. 그  
 構成이 어디에 焦點을 두고 무엇을 力說하였는가를 通觀하면 다음과  
 같다.

## 〈卷 上〉

諸物의 公向, 諸物의 私向. 1. 天의 向. 2. 氣의 向. 3. 地의 向. 4.  
 海의 向. 5. 人身의 向. 6. 生覺 容體의 向. 7. 天行 容體의 向. 8.  
 地生養의 向. 9. 覺類旋巧의 向. 10. 覺類內引의 向.

15. 註 5.6 參看

16. 湯若望著, ibid. Vol. 1. 表題紙 參看

17. 湯若望著, ibid. Vol 2. p. 28. a.

## 〈卷 下〉

1. 天地의 美. 2. 人物의 外美. 3. 人物의 內美. 4. 諸物의 弱綠 5. 世人의 同心. 6. 人間의 異面과 異聲. 7. 人間 世上의 缺陷 8. 鬼神 9. 主가 없으면 理致가 어긋남 10. 人心의 能力. 11. 氣의 玄妙. 12. 靈魂의 常存. 13. 主宰의 無失. 14. 神으로 다스림. 15. 聖스러운 자취. 이를 보면, 이 實證의 記錄은 天主의 實在와 그 攝理에 焦點을 두고 있다. 卷上에서 다루고 있는 實在論은 卷下의 事實을 理解케 하는 序論으로 敘述된 것이다.

흔히 宗教의 入門書라고 하면 大概의 경우 目的意識이 지나치게 앞서서 論理的인 體系가 信仰을 前提로 誘導되어 一種의 布教書로 傳化하는 傾向이 濃厚한데 이러한 先入感을 버리고 構成된 體制만을 본다면, 湯若望이 指摘한 天主의 實在와 그 攝理論은 人間에 있어서의 至靈과 物質에 있어서의 本質이 造物主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科學的인 分析을 피했다.

## 4

첫째, 湯若望은 宇宙萬物에 대한 秩序를 ‘公向’과 ‘私向’으로 나누고 있다. ‘公向’은 ‘萬物이 다 함께 向하는 것’을 말하고 ‘私向’은 ‘一物이 각己 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宇宙의 秩序를 본 것이다. 그가 본 公向論은 “宇宙萬物은 비록 複雜할지라도 오직 向하는 것은 하나”<sup>18)</sup> 라는 것이다. 어찌 해서 하나라는 立論이 나왔는가 그에 대해서 그는 네 가지의 論據를 提示하고 있다.

a. 활(矢) 쏘는 者가 표적을 정하지 못할 경우, 화살이 맞을 理 없

18. 以下の註는 「主制羣徵」의 內容을 말及한 貴重한 資料이므로 讀者들의 參考를 위해서 重要部分은 拔萃, 原文 그대로를 轉載한다. 實宇之中, 函有庶品, 庶品雖繁, 實宇惟一, 繁者向之, 一乃所向. 如家人然, 親疎貴賤不同, 同向一家. 如演戲然, 嬉笑怒罵不同. 同向一戲, 所向惟一, 故名公向. 即此公向, 足徵主制. (湯若望, op. cit. Vol. 1. p. 1.a.) 라고 論하여, 아무리 宇宙안에 있는 事物이 複雜할지라고 指向點이 「하나」임은 「公向」임과 同時에 이것이 곧 主의 攝理라고 主張하고 있다.

고,<sup>19)</sup>

- b. 누에(蠶)는 그 알이 벌레로 변하고, 벌레가 나비로 변할지라도 버려지는 것이 없다. 向하는 바가 自體에 있으면 ‘私’를 保全하느라 ‘公’을 잃고, 向하는 바가 全體 宇宙에 있으면 ‘公’을 保全하느라 ‘私’를 잃고<sup>20)</sup>
- c. 植物과 寶貝와 昆虫 등 化生之物에 屬하는 것은 비록 그 傳類라 할지라도 그 몸을 傷하고 그의 命을 끊으면서도 哀惜히 여기지 아니하고<sup>21)</sup>
- d. 藥草가 비록 잘못 投與되어 人間을 傷하게 한다 하더라도 目的의 病을 고치는데 있는 이상 오유가 있더라도 끝끝내 이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sup>22)</sup>

그는 이와 같은 提示를 하면서 화살을 두고 말하기를 ‘표적이 없는 화살을 쏘다면 그것은 分明히 亂射요, 設使 適中되더라도 그것은 偶然이요, 正射는 아닌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論은 ‘표적을 둔 화살이 正射이듯’ 宇宙의 모든 秩序가 꼭 하나로 ‘向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論證한 例示중에는 또 身體에 관한 것이 있다. 身體가 設使 耳目口鼻의 樣相이 다르고 性品·情意가 相異相克한다고 하더라도 公美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公美를 이룬 ‘向’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點에서 본다면 前者의 正射와 같은 뜻을 지닌 것이다. 역시 ‘向’은 하나라는 立論이다. 둘째의 例示에서도 누에의 進化를 말하는 가운데 ‘누에 알이 벌레로, 벌레가 나비로, 이렇게 進化되는 것은 죽었다는 概念에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進化라는 概念에서 본다면 私

19. 物之有爲, 以有所向. 設若無向, 即無一爲, 爲亦必亂. 如射者正鵠未立, 不得發矢. 苟或發之, 是爲亂射, 無中理矣(湯若望著. ibid. Vol. 1. p.1. b.)

20. 乃今萬物之中 變入他類, 以得存于總類者. 往往而有(如蠶變子, 而蟲變蛾是也). 奚輕棄其專若是. 蓋以向在一己. 所全私而失公. 向在全宇, 所全公而失私故也. (湯若望著. ibid. 2. a.)

21. 至若植物珍寶昆蟲等屬化生之物雖以其傳類故 而傷其體, 損其命不惜, 使非公向寰宇之美, 又胡爲而然哉(湯若望著. ibid. Vol. 1. p. 2. a. b.)

22. 凡物以缺而存, 知必有向故也. 如藥草雖或誤投傷人, 以其內在療病, 終不因誤而廢. (湯若望著. ibid. Vol. 1. p. 2. b.)

를 保全하느라 公을 잃는 수도 있고, 公을 保全하느라고 ‘私’를 잃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어디까지나 秩序라는 面에서 본다면 卽向하는 바가 各各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와 같은 論理는 셋째의 例示에서 더욱 뚜렷하다. ‘植物과 寶貝와 昆蟲이 어느 때엔가는 自己의 몸을 傷하고 命을 끊는다’ 그 命을 끊으면서도 哀惜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그것은 곧 ‘歸一된 公向에서의 發露’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너무나 當然하다는 뜻이 內包되고 있다. 그것을 強調한 것은 그의 施藥論이다. ‘患者가 있다고 하자 그 患者는 病을 고치기 위해서 藥을 먹는다’ 病이 낫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藥効가 없더라도 藥을 없애지는 않는 것’이다. 이것이 곧 ‘公向’이며 ‘公向’은 一種의 自然法則’과도 같으며 ‘땅에 떨어진 씨가 썩어 푸른 씨이 뜰는 事實과 똑 같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論理로서 그는 天體의 運行과 原子의 構造는 奧妙하지만 結局 그것은 ‘奇蹟’이 아니라 ‘靈蹟’이라는 意味에서 天主와 結付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宗教觀은 이런 觀點에서 짝튼 것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論理(公向)를 展開하면서 다른 一面으로는 ‘私向’論을 부르짖고 있다. 그것이 곧 둘째의 展開이다.

둘째, 物體를 통해 본 私向論; 그는 物體를 통해 본 私向論에 앞서 ‘私向’이라는 概念을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定理하고 있다.

公向은 萬物이 다 함께 向하는 바를 말하지만, 私向은 이와는 다르다. 私向은 一物이 各己 向하는 것이다. 때로는 ‘形容’이라고도 하고 혹은 理體(全體)라고도 하고 分體라고도 한다. 甚至於는 次第先後가 같지 아니한 것을 보고 ‘多向’이라는 말을 쓰기도 있는 것이다.<sup>23)</sup>

그가 展開한 形容·理體·分體·多向은 公向과는 對立되는 論이다. 公向이 私를 저버리는데 있다면 私向은 公을 저버리는데 있는 印象을

23. 私向或論形容, 或渾體, 或分體, 各不等各次第先後亦不等, 蓋蘇大主預定多向, 并預備向相須之力, 弗使萬物有何而不得之弊。(湯若望著, ibid. Vol. 1. p. 3b. 4a.)



주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그는 宇宙의 모든 物體를 다음 여섯가지로 나누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秩序를 ‘私向’이라고 한 것이다.

- a. 赤道内外의 距離가 꼭 같은 것은 太陽으로 하여금 해마다 一周해서 四季를 나누어 百物을 살게 하였고,<sup>24)</sup>
- b. 높은 봉우리에서 샘이 나오는 것은 비와 눈의 내림이었고, 비와 눈은 공중에 가득찬 外氣가 變함이었고<sup>25)</sup>
- c. 火·氣·水·土중에서 땅이 가장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性品이 至極히 乾하고 冷하면 한쪽에서는 鑛物이 產出되고, 한쪽에서는 과일이 產出되고<sup>26)</sup>
- d. 물은 本性이 단(飴)데 바다물만이 짠 것은 결코 海別에 쫄여서 짜진 것은 아니고<sup>27)</sup>
- e. 뼈가 못(釘)처럼 박히고 톱처럼 비스듬하고, 껍질처럼 두두러져 나오고, 고리(環)처럼 얽힌 것은 偶然이 아니고<sup>28)</sup>
- f. 感覺 있는 動物이 함께 이루면 서로 害친다하여 防禦를 위해 羽毛, 鱗甲·牙角 및 毒涎이 생긴다.<sup>29)</sup>

그가 본 a. 즉 하늘에 대한 概念은 太陽은 윗자리에서 빛을 내려서 植物을 發育시키고, 色은 物件에 주고, 빛은 눈에 퍼고, 景致를 山川

24. 至若赤道内外相距, 限界皆等者, 蓋所以令日行歲一周, 以分四時, 以生百物也。(湯若望著, *ibid.* Vol. p.p. 4b. 5a.)

25. 天氣豈自向者哉. 觀之山泉. 泉雖高岡, 以雨雪滲入而成, 然久無雨雪, 其源懸竭, 而永不竭者何, 蓋類有外氣氤氳于山之空, 變爲水體以繼續之, 故得源源而流行成江河, 繇此觀之, 氣豈非水之母哉. 氣之所生, 一爲風, 風有多利.(湯若望著, *ibid.* Vol. 1. p.5. b.)

26. 地之非向己也. …論地之性 爲至乾次冷. 大塊盡然, 即其產物之效, 不宜有異. 乃今一山之間, 此向產銅無鐵, 彼向反是, 此向多果, 彼向所無. 何也. 即地東西不同, 非南北比, 而天與三曜光力之施, 終無弗同.(湯若望著, *ibid.* Vol. 1. p.p. 7b. 8a.)

27. 海非向己, 以其鹹味知之. 蓄水性本甘飴, 而海獨否, 因知他有向也.(湯若望著, *ibid.* p. 8a)

28. 試論其骨. 骨所向者, 保渾體之固, 順衆肢之動是也. 百肢止共一骨, 身雖固矣, 欲動無絃, 又使骨各散處, 身即易動, 不固, 且動亦無法. 以故人身骨甚多, 大小不等…或縱入如釘, 或斜迎如錐, 或合筍如脛, 或環抱如攢…(湯若望著, *ibid.* Vol.1. p.p. 1 ob. 11 a.b)

29. 覺類之並育也, 不免相害. 造物者慮之, 即付以避患之具, 如羽毛鱗甲, 牙角爪蹄, 及諸毒涎皆足禦敵以衛其身…論草木之向, 厥根下入, 既固其基, 又吸土氣以隆資養也. 厥身皮圍, 避寒暑也. 厥枝廣開, 秋實速懸無碍也.(湯若望著, *ibid.* Vol. 1. p. 16 a.b.)

에 밝힌다는 ‘힘을’ ‘주고’ ‘떠고’ ‘밝힌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保存’하기까지의 法度까지를 베풀어 준다는 概念을 가지고 있다. 換言하면 ‘太陽이 멀리 있다고 하자 그러면 빛이 弱해질 것이 아닌가. 따라서 育成은 어려울 것이고, 太陽이 가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빛이 強烈해서 生物을 태워 죽일 것이 아닌가. 그러니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에 太陽이라는 物體가 꼭 알맞는 位置에서 가져야할 機能을 發揮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이와 같은 機能은 法則에 뜻이 있고 이것이 즉 保存의 結果를 가져 온다는 것은 그의 太陽과 地球와의 關係論에서 알 수 있다. 그가 展開한 論을 보면 地球가 太陽을 한바퀴 돌면 꼭 12時間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낮을 밤으로 바꾸게 하되 가장 重要한 問題는 停駐하지 않는다는데 뜻이 있다. 그의 12時間論은 아마도 當時 中國에서 通用되고 있었던 干支法에 準用된 表現인듯 하나 地球가 太陽을 돈다는 地動說이나 地球圓說이 內包된 說明은 當時 中國의 傳說的인 天文學說을 뒤엎은 破格的인 것이었으며 西洋 科學이 傳播된 一面임을 엿볼 수 있다. 어쨌든 그가 科學을 通해 太陽의 機能을 說明한 點은 그 意義도 크려니와 그가 強調하려는 意圖는 太陽의 機能이 ‘주고’ ‘떠고’ ‘밝혀서’ 生物을 ‘保存’하는데 있다는 점에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을 지니게 하는 主人公은 무엇인가. 그의 窮極의인 目的은 이의 解明에 있었을 것이며 이와 같은 說明은 그의 前哨의인 問題의 提起에 不過했다. 다음으로 例示한 것은 d. 즉 天氣의 解釋이다.

그는 氣가 물로 變하는 過程을 說明하여 즉 ‘새이 높은 봉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비와 눈이 들어 감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비와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 根源은 말라 버린다고 前提하는 論及이다. 그 根源이 말라 버리지 않을 비와 눈은 무엇인가. 그는 이에 대하여 ‘外氣가 위의 공중에 가득차서 이것이 물로 變해서 이어 줌으로써 새이 끊임없이 흘러 내려 江河를 이루고 이것이 發散하여 다시금 물로 還元한다는 論

리는 물의 母體가 氣로 歸納되고 있다. 그가 말하는 ‘氣는 바람을 낳는다. 비와 눈과 서리 등을 내리게 한다’ 그러니 氣는 ‘自體를 위해서 내리는 것’이거나 ‘自體를 向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제나 ‘自向’하지 아니하고 ‘他向’할 뿐이라는 것이 그의 둘째로 세운 假說이다.

세번째로 내세운 假說은 ‘땅’이다. 땅이라는 것은 火, 氣, 水, 土중에서 가장 中心을 이루고 있는 渾體로서 그 比重을 으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가 땅을 으뜸으로 내 세운 理由는 至極히 簡單하다. 거저 ‘萬物에 中間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만 풀이하고 있을뿐, 어찌하여 萬物의 中間을 차지하는 가에 대한 解明은 釋然치 않다. 그러면서도 ‘땅이 으뜸이요, 다음으로는 물, 그 다음으로 氣, 그 다음으로는 火라고 할 뿐이다. 이의 順列에 대하여는 解明이 없다. 다만 어렵듯이 暗示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땅과 물은 습쳐서 하나의 地球를 이루고 있다. 물의 半面이 나와 바다에서 漸漸 멀리 떨어져 있다. 朝水가 바람을 타고 갑자기 불어나는 일도 있다. 땅이 물과 같은 높이라면 氾濫할 것이다. 그래서 땅은 바다와 멀어질 수록 높아 진다. 그러나 갑자기 높아지면 水利할 수 없을 것이고 衝決되는 災殃도 있을 것이다.

換言하면 땅이 바다 보다 높아지는 것은 偶然이 아니라 氾濫을 避하고 水利를 할 수 있으며 災殃을 免하기 위한 까닭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人間이 쓸 수 있는 用品 즉 石炭·木材·藥草가 乾한데서 나오고 金·銀·銅·鐵·錫 등 五金은 冷한데서 나와 諸利를 辟할 수 있으며 植物과 鑛物은 異地에서 產出됨으로써 人間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乾冷의 作用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日·月·星 三曜의 光力이 똑 같은데도 異質的 產物이 생기는 것은 땅의 性品에 따른 것이라 하고, 그 性品은 무슨 作用에 의해 틀리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各各 定해진 바가 다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推測하고 있다. 어떻든 이

것도 自向이 아니라 他向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疑問을 提起한 것이 그 셋째 要素이다.

다음으로는 海 즉 ‘바다’에 관한 解釋이다. 물의 性品은 本來 달지 만(飴), 오직 바다만은 짜(鹹)다. 그것은 太陽의 빛을 오래 받아서 단 맛이 變하여 自然히 짜지는 것으로 一般이 알고 있으나 實은 그의 解釋을 따르다면 ‘햇빛이 물에 들어 가는 길이는 不過 二丈(두질)을 넘지 못한다. 熱을 나게 하는 것은 不過 ‘數寸’이라는 것이다. 「主制羣徵」이 나올 무렵의 水泳者 또는 當時 科學者들의 見解로 看做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는 결코 ‘햇빛으로 바다물이 짜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가 완강이 否認하고 있는 解釋은 ‘萬一 빛으로 말미암는다면 해가 비취면 비취일 수록 더욱 變해져 더 짜질 것이 아닌가 소금이 난다고 해서 다른 作用에 의한 變體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變한다’는 것은 반드시 先後가 다른 것이다. 바다의 짠은 ‘本來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 本來의 것이 무엇인가 鱗族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짜진 것이라면 여기서도 自向은 아니라는 것이 되고 그 ‘本來의 것’의 解明은 亦是 問題만을 提起했을 뿐 解答은 性急히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그의 넷째 問題이다.

다음으로는 人身에 관한 問題이다. ‘뼈이 向하는 것은 온 몸을 단단하게 하는 것을 保障하여, 팔·다리 動作을 順順하게 하는 것이다. 百肢가 하나의 뼈로만 되어 있다면 몸은 비록 단단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움직이지 못할 것은 너무나 明瞭하다. 그러면 뼈가 各各 흩어져 있다면 또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까닭에 사람에게서는 뼈가 많고 크고, 작음이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의 主論은 이 때문에 形狀과 크기와 굳음이 다르고 이를 湊合해서 一體의 用을 完全케 하는 것이 決코 偶然에서 또는 無意味에서 일어난 事實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展開한 論理例示중에서 解剖學에 관한 것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머리뼈는 이마로부터 腦에 屬하는데 그 數는 여덟이다. 上頤의 骨은

열들이고 아래(下頷)는 하나의 온 뼈로 되어 있다. 齒牙는 32, 脊髓骨은 34, 胸上刀骨은 3, 肋骨은 24, 上의 10은 고리처럼 가슴을 둘러고 刀骨과 맞닿아 心肺를 保護한다. 아래 열개는 脾胃를 넓게 자리 잡게 한다.

이와 같은 展開는 當時의 傷寒論에 立脚한 漢方醫學이 아니라 現代解剖學의 理論이 벌써 300年前에 擡頭되었음을 뜻한다. 더우기 各骨의 機能은 그 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라 他向에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各骨은 멋대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 骨의 奧妙한 機能은 ‘人間’이라는 靈的 世界를 벗어 나서, 생각할 수 없도록 神秘性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神秘性은 어디에서 緣由된 것인가. 못과 같이 바로 들어 가고 톱과 같이 비스듬하고, 어떤 것은 숨해서 께작같이 두드러져 나오고 어떤 것은 고리처럼 되어 서로 얽혀진 모습을 이루고 한 것은 分明히 몸을 단단하게 하고 움직임을 順하게 함을 目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果然 이렇게 만든 造物主는 무엇인가. 그는 이러한 問題의 迷宮에서 無限히 그 本然의 것을 찾으려 努力하고 있다. 그때문에 肉의 數에 대하여서 까지도 關心을 가졌었다.

肉의 數는 600餘個나 되지만, 그 모양과 長短·寬狹·厚薄·圓扁·角渾이 각각 다르다. 그 形勢는 각각 上·下가 서로 나란히 되어 어떤 것은 順하게 가고 어떤 것은 빗겨나고, 어떤 것은 가로 가고, 어떤 것은 세로 갔다. 그러나 이것은 ‘本’과 ‘用’이 있어 本身의 많은 움직임을 順하게 하니, 이것이 總向이다.

이와 같이 그는 ‘本’과 ‘用’을 갈라 놓고 그 本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根源을 生理學에 까지 發展시켰으나 結局은 모두 自體의 補強이나 利得을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니고 ‘박히고’ ‘비스듬하고’ ‘두드러지고’ ‘얽힌 것’들이 모두 他向을 위하여 存在하는 것임에 틀림없다는 結論이 그의 다섯째 問題의 解釋이다.

f. 는 生覺과 容體의 特殊性에 관한 解釋이다. 感覺있는 動物은 함께

이르던 相克하므로 相互 이의 禍端을 避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 羽毛 鱗甲·牙角·瓜蹄 및 여러 가지의 毒涎이다. 이와 같은 것은 그 自體를 向해서가 아니라 他向에서 오는 現象이라는 것이 그의 여섯째 問題의 解釋이다.

要컨대 以上の 여섯가지 點을 미루어 볼 때 그의 主論은 萬物은 無爲한 것이 하나도 없고 有爲한 것뿐이요, 모든 運行은 人間에게로 向하는 것이지 決코 各個의 個體를 爲하는, 이른 바 自己를 向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라는 點이 그의 見解이고 보면 그의 物體를 通해 본 私向論 역시 公向論과 方向이 다를뿐, 그 機能面은 一脈相通하는 點이 없지 않다. 問題는 여기에 있으나 그는 이를 單純히 公向과, 物體面을 通해 본 私向 그것에 멈추어 性急히 結論을 내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즉 그의 物向面을 通해 본 보다 더 緻密한 考究이다.

셋째, 物向面을 通해 본 私向論; 그는 「天行」 「地の 生養」 「覺類의 施巧」 「覺類의 內引」에 대한 움직임에 대하여도 非常한 關心을 가지고 洞察해 왔다.

a. 天行에 대하여; 그는 于先 萬物을 對象으로 삼고서 ‘움직인다’고 하는 問題에 대하여 特히 ‘스스로 움직인다’(自動)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의 나름대로 定理를 내리고 있다.

自動이란, 位置를 잃었을 때의 것으로, 動하여 다시금 그 位置로 復歸하여 原狀 그대로 還元되어 靜態를 이루는 것<sup>30)</sup>이라고 하였다.

곧 움직임은 自主에서 나온 것이지, 억지로 시켜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意味이다. 比喩로서 例示한 것을 보면 火·氣 二行과 水·土 二元의 較輕이다.

輕한 것은 위를 處所로 삼고, 위를 잃었을 경우는 動하고, 위에

30. 如火氣二行, 較輕, 輕者以上爲所, 失上故動, 至上即靜. 水土較重, 重者以下爲所, 失下故動, 至下亦即靜. …今天與諸曜, 終古常動, 從無停晷, 以爲不得其所, 則未嘗不得其所. 試觀天體上覆, 未嘗不上, 天衆渾圓, 未嘗不圓, 何失所之有. 既非失所而動, 動非自向明矣. 且凡動雖曰向物, 究歸自何. (湯若望著, *ibid.* Vol. 1. p.p. 17b. 18a.)

이르면 (至) 곧 靜한다. 水·土의 二元을 比較한다면 重한 것은 아래를 處所로 삼고, 아래를 잃으면 動하고, 밑에 이르면 곧 靜한다.

火·氣 二行이나 水·土 二元이나 對象物의 差가 있을뿐 論理는 꼭 같다. 그는 이러한 假定을 設定해 놓고, 天行을 보아 왔으나 이와는 다른 現象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즉

天體가 위에 덮히어 있으니, 恒常 위에 있으나 天象이 決코 渾圓하지 않다. 填星은 30년에 하늘을 一周하고, 歲星은 12년에 하늘을 一周하고, 火星은 30년에 하늘을 一周한다.

太陽과 太白辰星은 그 平行을 論하면 그것은 各各 1년과 比等하다. 그러나 前後 上下의 움직임은 各各 다르다. 太陰은 27日 남짓하여 하늘을 一周하고, 七政은 각각 遲速의 差가 있다. 이와 같은 順逆과 高卑에 의해서 遠近 距離가 時時로 틀리기 때문에 列宿은 七政에 비해 더디어 70년에 1도를 움직이니 이를 計算하면 25,000餘年만에 한번씩 하늘을 도는 셈이다.

이것을 望遠鏡으로 보면 太陰은 둥글지 않고, 그 面은 차(滿)지 않으며 內邊에 水泡와 같은 것이 나타나고, 높고 낮음이 가즈런치 않다고 하며 太白을 볼 때에도 때로는 차(滿)고, 때로는 이즈러지고, 上弦과 下弦이 있어 해와 距離가 가까우면 둥글고, 멀면 이즈러지는 이러한 關係는 역시 모두 天體萬象이 움직이면서도 相衝하지 않는 것은 무슨 緣由일까, 이것이 또한 問題의 하나이다.

b. 그뿐만 아니라 地의 生養에 대하여도 神奇한 點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動物과 植物의 生長은 精血과 種子에 根源한다. 그리고 外部의 陽氣가 없는 限 生長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는 이런 假定을 두고 다음과 같이 物向을 論하고 있다.

精血에는 髓分과 精分이 있다. 陽氣는 먼저 髓分을 伸展시켜 絲繩과 같이 하고 안으로서는 구멍을 많이 만든다. 陽氣는 精分을 써서 心·肝·腦 세가지를 이루고, 가는(細) 오리는 脈·絡·筋의 質을

삼는 것이다. 그런 뒤에는 이것을 擴大해서 넓히고, 引伸해서 길게 하고, 이를 조개서 부서지게 하고, 漸次 四體를 結聯시켜서 生·養·覺 등 모든 氣運의 道를 삼는다.<sup>31)</sup>

즉 身體란 血이 變해서 되고, 氣를 依賴해서 模을 이루고, 大小와 體勢를 定해서 各己 當然함을 얻게 하는 그것은 바로 ‘氣運의 功’이라고 하는 것이다. 氣는 곧 靈도 아니요, 覺도 아니요, 그 效能이 實로 奇異하니 氣를 運營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둘째의 疑問으로 提起하고 있다.

c. 그리고 動物(覺類)의 活動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例를 提示하고 있는데 그 중 몇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거미가 줄을 칠 때에는 橫線으로 시작해서 交角을 똑 같이 하고 있다. 둘째가 定해지면 안으로부터 밖으로 向해서 줄을 치고 숨어 있다가 벌레가 걸리면 재빨리 가서 生禽해서 숨같은 실로 겹겹이 둘러싸서 달아매 놓고 먹는다. 벌은 꿀통(蠟筒)을 많이 갖춰 놓고 꿀(花露)을 모아 糧食을 貯藏한다. 꿀통은 여섯 모(六面)로 만들고 꿀통 입구에는 얇은 膜을 친다. 이것이 露出될까 念慮해서 糧食을 덮고, 무너질까 念慮해서 牆을 쌓는다.<sup>32)</sup>

개미는 糧食을 가두어 갈망한다. 낱알(穀種)은 싹이 틀까 念慮해서 芽(芽)을 잘른다. 濕氣가 들면 갈망했던 糧食을 내다 말리운다.

누에는 늙으면 스스로 실을 감아 고치를 만든다. 고슴도치(蝟)는

31. 動植二者其能生能長, 一原於精血, 一原於種子. 然非外有陽氣以發舒其力, 即精血與種亦弗能自生長也. 蓋精血有僉分, 有精分, 陽氣先伸展其僉分, 令狀如絲縷. 內發多空. 有深長如管者, 有圓細如孔而浮起者, 各有柔堅斷續之不同, 而骨肉即於此乎分. 次陽氣用其精分. 先成心肝腦三肢, 並旁發細絲. 以爲脈絡筋之質, 已即透入其中, 而擴之使寬引之使長. 割之使碎, 漸令結聯四體. 以爲生養覺諸氣之道焉.(湯若望著, *ibid.* Vol. 1. p. 20a, b.)
32. 覺類之動, 如謀食營巢. 傳類保身之屬, 皆奇巧足動人思, 姑舉數品言之. 蛛之經網. 以橫線始功, 其中交角各等, 及既周定, 即自心向外經圈. 相距悉等, 于是網前後等寬, 而左右則漸長大焉. 網成, 自寓他所, 有蟲投入, 速往擒之. 裏以自絲如錦, 另懸以聽食. 蜂備多蠟筒, 內聚花露, 以儲冬糧, 乘夏合作, 或出取花若水以爲糧, 或候門迎之, 糧至, 蟻之進, 或居內謹藏之, 嘗觀其筒之制. 體皆六面, 取其合之密也. 筒之口, 有薄皮焉. 所以覆糧, 禦其露也. 其底有壙, 恐其崩而散也. 故其勢少拱. 所以制崩也. 蠶滿筒重必下, 則又爲捲籠以承之, 噫異矣. …(湯若望著, *ibid.* Vol. 1. p.p. 22. b. 23. a.)



나무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 뜨리고, 옆으로 떨어져 쫓겨 가지고서 먹는다. 고양이는 쥐를 잡을 때 쥐가避할까 念慮해서 가까이 있는 糞을 파묻는다. 魚類(鱗族)도 鳥類(飛物)도 마찬가지다. 개가 열(膽)을 만하고자 하면 靑草를 먹고, 제비가 病이 들면 藥을 먹고, 사슴이 中毒되면 게(蟹)를 먹는다.<sup>33)</sup>

위의 各樣各色的 技巧는 約束처럼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各各 現狀을 維持하며 自我의 生命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分明히 이렇게 시키는 作爲가 潛在하고 있다는 그것이 그의 셋째의 疑問이다.

d. 에 관한 것은 「內引」의 解釋이다. 이 內引도 매우 慈味 있는 예를 들고 있다. 그 중 몇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양이가 쥐를 보면 잡지 못해 發狂하듯 쫓아 간다. 羊이 늑대를 보면 무슨 피로든지 避해 버린다. 그것이 크기에서 일까 힘에서일까 크기나 힘에서는 決코 아닌듯 하다. 새끼고양이라도 큰 쥐를 덤치려 하고 큰 羊이라도 꼬마 늑대를 보면 도망친다. 이것이 神奇하다. 원숭이가 아무리 재주를 부려 고리작을 열고 자전거를 타고 人間의 흉내를 다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게 의해 訓練된 行爲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外引」에 不過하다. 그러나 前述한 ‘고양이와 쥐’나 ‘늑대나 羊’ 같은 것은 嗜欲과 趨避 그 自體가 外部의 技巧에서 배워진 것이 아니라 타고난 性品과 그 바탕이 ‘內引’의 技巧라 아니 할 수 없다.<sup>34)</sup>

그가 主張하는 ‘內引’은 어떤 物體의 模(모양)나, 어떤 物體의 向은 그 作用이 곧 靈과 結付되고 있으며, 이 靈이 存續하는 限, 그 行爲가 永遠히 保存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人間의 技巧가 아무리 뛰어난

33. 鳥賊好食羸，然取之不善，羸踰閭戶，反得傷矣。以故先進一石支之，使不得闕，急進食焉，立羸(生海底恒堅立)以無目，繫身一處，勢羸得食。有小蝦焉，恒左右之以贊不及。每於魚進食時，羣集蒲戶，即微嚙羸以相詔，令速閉以食魚焉。有名多魚者，體過肥重，前取食，必後他魚，造物者補其缺，令其類生肉罷斃盡。小魚以爲蟲，就食之，因反爲所食矣。(湯若望著，ibid. Vol. 1. p. 23b.)

34. 主特界以內引之巧，以適于用，使一觸可欲(如貓見鼠)即覺，必求得之不能已。一觸可畏(如羊見狼)即覺，不求避之不能已。此觸即覺之意，即內引也。而必求得與避之已，是爲嗜欲趨避之情也。(湯若望著，ibid. Vol. 1. p. 25. a. b.)

다고 할지라도 그 技巧을 放置하면 배워 준 그 技巧이 停止 또는 麻痺나 異狀을 가져 오는 수가 있지만, 靈의 世界 乃至 그의 作用에 의한 永遠 保存의 樣相은 停止를 모르고 麻痺를 볼 수 없다. 換言하면 人間의 技巧은 배워 주고는 放置해 두는 것이지만, 人間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그 行爲가 持續 乃至 保存되는 것이 있고, 人間의 技巧에 대한 訓練은 반드시 다른 物을 써서 하는데, 物向의 動作이 本能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物은 本來 없던 것이 뒤에 있고 없어지기도 하나 그 物向은 恒常 保佑로서 永存하고 있는 것이 그가 본 ‘天主의 印과 跡’이라는 見解이다. 즉 造物主의 功用에서 이루어지는 現象이라고 斷定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은 卷上에 既述된 概要다. 湯若望은 처음부터 天主가 存在하기 때문에 既述한 諸現象이 나타난다고 본 것은 아니다. 宇宙諸現象에 어떤 秩序가 있지 않은 가를 본 것 뿐이다. 있다면 그 秩序는 果然 무엇일까 어떤 方法으로 展開한 것인가. 이런 點에 煩腦한 나머지, 宇宙의 萬物에는 ‘公向’과 ‘私向’이 있다는 것을 밝혀 내고, 繁雜한 萬物에서 하나의 向을 發見하여 이를 ‘公向’이라고 命名하고 天·氣·地·海·人身·生覺·容體 등 諸物과 天行·地의 生養, 動物의 技巧·動物의 內引을 통해서 ‘私向’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洞察해 냈다. 이와 같은 ‘公向’과 ‘私向’은 ‘天主의 實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卷上の 論及은 ‘天主의 實在論’이라고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湯若望은 이와 같이 天主의 實在論을 提起한 다음, 創造된 諸物이 均衡을 잃지 않고 自己存在를 永遠 不變하게 繼續 維持시키는 가답이 무엇인가. 그 自體는 어디에서 緣由된 것인가 이 點에 대하여 다음 章에서 ‘諸物의 調和面을 통해 본 그의 攝理’를 考究했다.

(1) 天蓋는 하늘 위에 덮혀서 千世토록 찢어지지도, 기울지도, 損傷되지도 않으려니와 彩色도 不變하며, 無數한 밝은 별들로 꾸려졌고, 깊고 얇은 것의 차례가 알맞아 바람이나 흙비로 이를 어둡게도 하지 못하고 우뢰와 번개로도 이를 허물지 못하고 있다.<sup>35)</sup>

(2) 宮殿은 그 ‘本殿’과 ‘別殿’을 보면 지붕·터·기둥·돌보 등이 모두 格式에 맞아서 齒輪化합하고 있다.<sup>36)</sup>

(1)은 天에 대한 美의 比喩요, (2)는 地에 대한 美의 比喩다. 湯若望은 이러한 兩例를 比較하면서 天地는 하나의 큰 宮殿으로 「形體」와 「性質」 「原理」가 어울리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巧妙하고 絕倫함이 實로 神秘롭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部分과 全體가 서로 어울리는 美는 모든 物體가 精美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精美에 대하여 湯若望은 天의 境遇와 地의 境遇를 對照하면서 天의 境遇는 自然的 現象이요, 地의 境遇는 人工的 現象이라고 區分하고, 自然과 人工의 美는 永續性 與否에 起因한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그는 어디까지나 地上에서 이루어진 人工的인 것은— 돌을 쌓아서 山을 만들고, 물을 가두어 못(池)을 만들고, 그 사이에 花草를 심어서 裝飾하고— 모두 地의 美를 본받거나 天의 美를 본받아서 이루어진 自然美의 模倣이기는 하나 持續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永遠不變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理由에 대하여 마치 ‘木片이 물에 뜨는 것은 그 첫 瞬間만 물의 浮力에 의해 뜨는 것이 아니라, 떠 있는 동안에는 繼續해서 물의 浮力에 의해 뜨는 것’이 類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繼續해서 뜨는 浮力’은 곧 創造에 의해 ‘保存하며 創造를 繼續한다’는 原理에 適應된다는 것이다. 그러던 그 創造의 主人公이 무엇이나 이에 대해서 湯若望은 이를 ‘天主의 攝理’ 아니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強調하고 있다. 여기서 그의

35. 試觀厥蓋，惟天上覆，千世不裂不偏不損，備諸采色不變，飾以明耀珍貝，大小無算，深淺次第，各得其宜，風霾所不能昏，雷霆所不能限，精美至矣，莫能加矣。(湯若望著，ibid. Vol. 2. p. 1. a)

36. 如宮殿者，視其堂其廡，凡蓋址棟宇之屬，悉合于式，彼此相稱，即微巧工無疑。(湯若望著，ibid. Vol. 2. p. 1. a.)

天主에 대한 攝理觀을 알 수 있다.

둘째의 例로는 人物의 內·外美에 대한 論이다. 物件의 美는 넷이 스스로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形物(形態가 있는 物體)이요, 形物은 五官으로 알 수 있는 것이면 이것을 ‘外美’라 하고, 나머지 셋은 곧 生魂·覺魂·靈魂이니 五官으로는 미칠 수 없고, 오직 마음으로만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이것을 ‘內美’라고 定理를 내리고 있다. 于先 ‘外美’에 대하여

一身의 身長으로 말하면 6倍는 廣이요, 10倍는 厚요, 팔뚝에 比하면 4倍요, 두 발에 比하면 6倍요, 이와 같이 본다면 肉身이 어울리지 않는 곳이 없다.<sup>37)</sup>

人間뿐이 아니요, 모든 生物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하면서 그 實例를 許多히 들고<sup>38)</sup> 있다. 말하자면 對象物을 어떤 尺度위에 올려 놓고 倍分해서 거기서 奧妙한 現象을 抽出해 낸 結論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밖에서 보이는 奧妙한 外美는 반드시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換言하면 ‘內體’가 ‘外美’의 原理를 곁해서 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라 한다. 그의 說明대로 따르면 植物이 生長하는 法式과 原力은 각각 그 種類에 쫓는 것이며 이를 主管하는 者는 ‘生魂’<sup>39)</sup> 인 것이다. 그러나 動物은 植物보다 다섯가지의 感覺을 가지고 內向(마음속의)의 動作과 本性的 志向이 이에 나타나게 된다. 平常時에 그 밖의 모습을 보면 그 意慾(생각)을 헤아려 알 수 없다. 閑暇한 틈도 없고, 選擇할 形態도 없으며 이렇게 분수에 꼭 맞는 것은 人間の 功力으로서는 通達치 못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또한 靈魂에 대하여

靈魂은 그 위에 明悟·記畝·愛欲을 天地四方의 안팎에 이르지 못할바 없이 通達하며 ‘有形’ ‘無形’이 모두 이에 맡겨진 것이고, ‘記

37. 自其一身之高言之, 六倍者廣, 十倍者厚, 比于肘四倍, 于二足六倍, …其相去也適相等. (湯若望著, *ibid.* Vol. 2, p.2 b. 3a)

38. 湯若望著, *loc. cit.*

39. 物美有四, 各能自存. 一有形物, 五官所可是也, 是爲外美. 餘三者, 即生覺靈三魂, 五官不能及, 則以心測知之, 是爲內美. (湯若望著, *ibid.* Vol. 2, p. 2a.b.)

속'으로써는 物像 物性의 理致를 鞏固하게 記憶하며 事物에 비록 雜多한 異類가 없이는 先入·後入하더라도 모두 記憶함으로써 事物이 많아져 腦에 容納할 수 없다는 것이고 '愛欲'(사랑)은 限없이 많으며, 萬物의 用은 그 利를 取하여도 끝날 날이 없다는 것이다.<sup>40)</sup>

이를 가름하여 말하기를 形物은 萬分の 一이라도 볼 수 없다. 形物이란 極히 卑賤한 것이지만 그 本體의 巧妙함은 部分과 全體의 調和로서 神靈의 原力에 의하여 調節되는 것이니 이는 영특한 人間의 功力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天主의 攝理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諸物의 弱緣性에 대하여 質·模를 結付시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즉 形物에는 반드시 그렇게 된 두개의 가닭이 있으니, '質'과 '模'이라는 것이다. 質(바탕)은 塊然히 自主하지 못하여서 模가 取하는 대로 맡겨서 이러라면 이리고 저러라면 저러는등 오직 그 命수를 따르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곧 '弱緣'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模(法式)는 本倫의 形勢를 定해서 彼倫과 區分된다. 하지만 模가 스스로 定한 것은 아니다.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命수를 하는대로 따르면서 바꾸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作者가 있기 때문'<sup>41)</sup>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의 說明을 보면,

土·水·火·氣 등 純粹體인 物은 모두 自主할 能力이 없다. 自主라는 者は 반드시 '그 本體가 所屬되는 바가 없는 것이고' 萬物을 超越하는 그 위에 있으며 이것을 強하다고 한다. 네개의 原行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네개의 原行이 繼承하여 가지는 것은 自體의 行爲가 아니라 곧 合體한 物이 되어 質이 되는 것이다. 行爲가 있는 이상

40. 靈魂則更加明悟, 記舍, 愛欲.(湯若望著, ibid. Vol.2. p.4a)

41. 質者塊然非自主, 任模來取, 或彼或此, 無不惟命, 則共弱緣矣. 模者定本倫之形勢, 以別之于彼倫, 然非模自定也. 所以命其爲此爲彼而弗易者, 是在作者矣.(湯若望著, ibid. Vol. 2. p. 4b. 5a)

42. 匪直質模, 凡純體之物(土水火氣四原行是), 皆無自主之能. 凡自主者, 必本體更無所屬超舊物而上之, 乃稱強焉. 彼四行不能也. 且四行所承之有, 悉非自爲, 乃爲合體之物, 而爲之質也. 既有爲者, 必有作者.(湯若望著, ibid. Vol.2. p.5. a.)

作者가 있을 것이다<sup>42)</sup> 라는 것이다. 이것은 物의 情이 모두 스스로 行爲하려고 하지만 만약 그 行爲하는 바가 남에게 있으면 반드시 本物 밖에 달리 어떤 物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시키는 者가 곧 作者라는 것이다. 作者는 없는 物이 없다. 오직 自存하는 者만 作者가 없다. 作者가 없는 以上 行爲하는 者도 없다. 이것은 모두 ‘行爲를 스스로 行爲하는 까닭’이라는 것이다. 純粹體는 例外다. 原行은 그 本體가 渾然·漠然하여서 廣狹·大小 등의 形勢가 다 外線의 所緣로 되어 物에 의하여 物에 依持하는 것은 不可避한 事實이다. 이것은 모두 弱劣이 서로 必要로 하므로 微驗하는 것이다. 萬一 그것을 ‘主管하는 者가 없다면 混亂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見解는 어디까지나 시키는 者를 作者라 하고, 自存하는 者없이 作者가 없는 것이라 하면서 ‘形物은 모두 創造를 받는 것’이므로 ‘主管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向極을 定한 者는 ‘반드시 無形이고, 至靈인 造物主에 屬할 것임은 疑心할 바가 없다’고 하고 創造하는 者를 原質이라고 보면 ‘根本的으로 材料로 될 物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는 論이다. 이러한 論은 至靈의 本質을 說明하는 序說인듯 하다. 그의 主論은 ‘至靈’이라는 그 自體가 物質이 아니며, 靈魂의 固有能力에서 나오는 觀念과 判斷과 推理를 둥진 생각은 物質과 共通하는 點이 한가지도 없는 非物質임을 뜻한다. 이와 같은 論證은 그가 主張하는 ‘至靈’論에서도 볼 수 있다.

或者는 하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것은 더욱 틀리는 말이다. 무릇 하늘의 能力은 照·施의 두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世上으로 하여금 받는 物이 없도록 하면 하늘의 能力은 空虛롭게 되어서 비록 效果를 나타내고자 하여도 방법이 없으니 物件에 依持해서 效果를 나타내어 物件이 始初부터 그리 될 수 있을 것인가? <sup>43)</sup>

43. 或疑天爲初所以然，益謬，凡天之能，不越照施二者，使世無物受之，則天能皆虛，雖欲著效無繇，豈有依物著效，而爲物初所以然哉。(湯若望著，ibid. Vol. 2. p.p. 6b. 7a.)

라는 問題를 提起해 놓고 至靈의 微驗方法을 다음 세 가지로 提示하고 있다.

1) 原質을 만듦에 있어서 이로 하여금 能히 萬가지의 模를 繼承할 수 있게 함으로써 萬가지의 形體를 이루고 萬가지의 形體가운데 萬가지의 本性이 附隨되는 것이다. 萬若 萬가지 物體의 本性을 내리 알지 못한다면 그 創造란 것이 어찌 能히 各己 그 當然함을 順調롭게 할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세운 것은 一物인데 萬가지 다른 物件이 모두 모여 드는 것이다. 이것이 至靈하다는 첫째 微驗이다.

2) 무릇 다른 異體性의 物質을 創造함에는 반드시 그 創造라는 것의 妙함을 몸소 느끼고 이를 종합(綜合)하여야 한다. 이제 대저 生·覺·靈은 그 本性이 各各 틀려 一萬가지가 모두 고르지 못하는 것이니 造物主의 廣大한 知識과 能力을 좇아 알 것이다. 이것이 至靈하다는 둘째 微驗이다.<sup>44)</sup>

3) 무릇 明悟·愛欲을 具有한 者는 영특하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미 造物主의 能力이 크게 나타나고 그 行함이 如斯한즉 그것이 그렇게 行하는 까닭 또한 반드시 이와 같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明悟·愛欲을 다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至靈하다는 셋째 微驗이다.<sup>45)</sup>

1)은 萬가지 本性을 가진 物件을 놓고 볼 때, 無限數의 原質을 어떻게 알수 있을 것인가, 2)는 設使 本質을 안다 손치더라도 無限數의 大小適量을 配分한다는 것은 人力으로는 到底히 할 수 없는 일이며, 더구나 生魂·覺魂·靈魂의 無形質을 造作해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3)은 明悟·愛欲을 일으킬 수 있는 作用이란 物質이 아무리 精緻하더라도 ‘生’으로 還元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明悟와 愛欲은

44. 其造原質也，使之能承萬模，以成萬體，萬體之中，萬性附焉，如非預識萬物之性，所造安能各順其當然，是所建者一物，而盈萬異向畢聚焉。此靈之一也。(湯若望著，ibid. Vol. 2. p. 7a.)

45. 凡造異體性之物者，必躬兼所造之微妙而蘊含之。今夫生者覺者靈者，體性各異，萬有不齊，則造者之廣智大能，從可知矣。是其靈之二也。(湯若望著，ibid. Vol. 2. p. 7a)

人爲的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徵驗의 三要素이다. 그러한 三要素의 至靈은 곧 天主力에 의해서만 可能하고 創造된 以後에 消滅되지 않고 現象을 繼續 維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天主의 攝理에서 오는 現象이라는 諸徵을 드렸다.

## 6

以上을 要約해 보면 ‘主制羣徵’의 特徵은 아래 몇가지로 區分해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儒敎의 遺習에 젖었던 韓·中·日 儒敎文化圈에서는 17世紀를 前後해서 當時의 天主敎書를 國家施策으로 焚書했던 만큼, 被燬되지 않을 수 없었던 「主制羣徵」이 奇蹟적으로 世上에 傳來되어 發見된 點.

둘째, 비록 異國인 日本 東洋文庫의 所藏·重刊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李瀾이 일찌기 그의 著「星湖塞說」에 引揭된 것을 보면 西洋의 科學思想이 비단 科學書뿐만 아니라 宗教書를 通해서도 많이 傳播되어 우리나라 17世紀 科學思想에 重大한 影響을 미쳤으며 이로 말미암아 近代化의 轉換을 가져 온 影響을 준 書인 點.

셋째, 序說이 없고 初刊本도 아닌 不完全한 重刊本이어서 板本學의 價値는 稀少하나, 敎規에 따라 嚴格히 세 차례나 原本과 對比, 校閱을 거친 것인 만큼 內容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推測되는 點.

네째, 內容은 疎略하고 難澁한 自問自答式 論調로 엮은 ‘天主의 實在와 그 攝理에 대한 諸證’이기는 하지만 모든 論證이 當時의 西洋에 있어서의 科學思想과 結付시켰던만큼 當時의 宗教書임과 同時에 科學書인 點.

다섯째, 卷上에서는 序頭에서 宇宙의 萬物에 대한 秩序가 있음을 豫測하고, 이를 分析한 結果, 果然 諸物은 ‘公向’과 ‘私向’의 原理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點을 發見, 天·氣·地·海·와 人身·容體를 對象으로 그 構造를 分析한 뒤에, 天의 機能, 地의 生養, 覺類의 施巧, 覺類



의 內引 등에서 ‘天主가 實在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아울러 證明한 點.

여섯째, 卷下에서는 이와 같이 究明해 낸 天主가 諸物을 어떻게 保存하는가에 대하여 그 攝理를 調和와 質模面에서 밝혀 낸 點.

이 밖에 그가 ‘天主의 實在와 그 攝理’의 證據로 내 세운 立論을 展開한 것 중에는 當時의 科學思想<sup>46)</sup>을 通해 본 天主觀이 支配的이었다. 그 許多한 實例중 우리 나라 科學思想을 크게 轉換시킨 天文·醫學·美學 등에 관한 貴重한 여러 資料와 그 分析은 다른 紙面을 빌기로 한다.  
(1970.2.25)

17世紀 우리나라 宗教는 勿論, 科學思想에도 重大한 影響을 끼친 바 있으면서도 國內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이 稀貴資料 마이크로 필름을 特別히 빌려 주신 金斗鍾博士님께 삼가 謝意를 表합니다. 一筆者一

46. 湯若望의 科學思想에 대하여 仁祖朝廷에서는 많은 關心을 가졌다. 즉, 湯若望이 淸國欽天監이 되어 印務를 掌管, 星度의 差數, 節氣의 盈縮을 論하여 新曆法을 創案했을 때에 京畿監司, 韓興一이 北京으로부터 그 책을 가져 온 일이 있고, 朝廷에서는 日官을 시켜 그 法을 推究, 甲寅서 丙子·丁丑 年間に 曆法을 고치자, 또한 日官을 派遣, 譯官을 帶同시켜 欽天監에 보내 疑問을 풀었다(仁祖實錄 46 仁祖 12年 23月丙申, (18日) 觀象監提調 金堉啓). 當時에 仁祖朝廷에서 배워 온 論을 보면 從來에 쓰고 있던 舊曆이 24節期를 100刻으로 基準하였으나 新曆에서는 96刻이었다. 따라서 節氣가 드는 15日を 準한것을 혹 16日 후 14日이 들므로 한달에 세번 入節하는 때도 있음이 舊曆과 틀린다.(loc. cit.) 또한 그 뿐만 아니라 仁祖 26年 3月 19日 甲寅에도 天文學正 宋仁龍을 派遣하여 西洋曆法을 淸國에서 배워 온 일이 있고(仁祖實錄, 49. 仁祖26年 3月甲寅) 韓興一도 吏曹判書에 在任한 當時, 淸曆으로 祖上 祭祀를 지냈다.(仁祖實錄, 49. 仁祖 26. 閏三月壬申) 그 當時에 淸에서 드려 온 曆書는 『時用通書』와 『治曆法通書』이었으며 韓興一도 祖上の 祭日이 閏月이었으나 이에 準했다. 宋仁龍이 淸에 가서 若望을 만난 것은 防禁至嚴으로 겨우 한번이었고, 가지고 온 책으로는 縷子草冊15卷과 星圖10丈이었다.(仁祖實錄, 50 仁祖27年 2月 甲午(5日) 條) 이때에 仁祖朝廷에서는 右議政 金堉이 先鋒에 서서 曆法은 100年 혹은 50年만에는 曆을 고치야 하는데도 不拘하고 許衡의 法을 쓴지 400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으니 西洋曆法에 準해서 改曆하지 않으면 안된다(孝宗實錄 2. 孝宗即位 12月丁亥, 備邊司啓錄 孝宗己丑 12月 3日條)고 主張한 일이 있었고, 日官 金尙范이 新法을 배워 가지고 北京서 돌아왔고 同事譯官 李點도 힘을 썼다고 하여 尙范에게는 加資를 하고, 點에게는 物을 賞으로 준 일까지 있다.(孝宗實錄 10. 孝宗 4. 正月癸酉, 芝陽議錄, 辛卷, 孝宗癸巳月條) 따라서 天文에 관해서 『主制彙徵』에도 言及이 적지 않으나 當時의 科學思想을 理解하는데 『主制彙徵』도 그 一翼을 擔當하듯 關心書였을 것이다.

---

A Study of the Chuchih Ch'unchêng, or "Proofs  
of Providence," with Emphasis  
on Its Impression and Value

Woo-choon Shim\*

<ABSTRACT>

The writer discusses about the value of the two-volume Chuchih Ch'unchêng in the Toyo Bunko in terms of its history and contents. The book is an incomplete reprint without preface. However, it has no error in its contents through the three elaborate revisions.

The writer defines the book as a scientific and religious work. The author shows in the first volume his hypothesis, analysis, and conclusion, of the order of the things in the universe and in the second volume tries to prove the God's existence and Divine Providence. The proofs presented are related to the scientific thoughts of the West in the 17th century.

---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brary Science, Chungang University.